

# 도, 탄소산업 육성·발전 방안 모색

### 탄소산업 전문가로 구성 '탄소산업발전위원회' 개최... 탄소산업 육성 정책과제 발굴·자문·네트워킹 강화

전북도가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전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 신원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의제 발굴 및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실효적 정책과제를 기획하고,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6년 전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을 목적으로 발족했으며, 올해부터는 제4기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그간 위원회(20명) 및 3개 분과별 실무협의회(30여명) 운영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업화 주요 실적으로는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16년),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17년), ▲탄소융복합소재 부품 소형 지원사업(18년), ▲초고온용 결정질 탄소화규소(SiC) 섬유개발 및 생체적합성 신

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19년), ▲재활용 탄소섬유 활용 융복합부품 상용화 지원(21년) 등의 사업과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0년)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분과별 실무협의회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는 제4차 중장기보고회를 개최(7월 예정), 자문과 조언을 받아 급변 말까지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추가 또는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보고회(12월)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전대시 도 혁신성장사업과장은 "정책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데이터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실현될 수 있게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또, 탄소산업을 지속적 혁신성장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어린이창의체험관, 주말공연 '풍성'

### 5~10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상설공연 '상상공연장 오픈'... 뮤지컬·샌드아트 등 마련

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체험관)은 오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체험관 공연장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설공연인 '상상 공연장'을 선보인다.

'상상 공연장'은 어린이창의체험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가족들에게 과학미술 샌드아트,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제공을 통해 휴식과 재충전, 창의적 상상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공연장을 운영, 많은 호평을 받은 후에 체험관 내에서 처음 시도하

는 상설공연인 만큼 많은 어린이 가족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상상공연장'의 공연은 28일 '드림팩토리' 극단의 '매직프렌즈 시즌2 with 어린왕자'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6개의 공연극단이 뮤지컬·샌드아트·서커스·버블공연 등 매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상상 공연장'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두차례 걸쳐 체험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험관 누리집(<https://jchi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농생명 식품분야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전과정 지원

### 도-한국식품연구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협약 체결... 유망기술개발·사업화 촉진해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효과 기대

전북도가 농생명식품분야 기술사업화 협업을 위한 도-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의 주력산업인 농생명·식품 분야의 기술개발·확산을 촉진하고 경쟁력있는 기술기업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 육성에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북이 보유한 식품연, 농촌진흥청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농식품 기업들에게 적극 연계하고 급변하는 농식품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술기업을 육성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취지이다.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와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 특구재



단 강병삼 이사장이 참석,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식품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 기관 간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농생명·식품 유망기술 개발, 기술이전·창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내 농식품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후속조치로 식품연의 적립기술료와 도비를 매칭해 신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력 사업은 공공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인 특구재단(전북본부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농생명·식품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전북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제)을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까지 특구사업(투자, 사업인중,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료 중 2억원, 도비 4천만원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술료를 특구재단의 사업화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첫 사례로 타 특구 및 전국의 출연연으로 확산, 지역 기업의 성장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 특구기업의 사업화 성과창출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해 과학기술 기반 지역성장력 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도, 행락철 맞아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 안전·쾌적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총력'

전북도가 행락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위생 및 청결 강화, 코로나19 방역, 공중화장실 등 각종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은 휴게소, 교통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상가 밀집 지역 등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이다.

특히,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및 의심 흔적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비상벨, CCTV, 경광등)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중화장실 내 감염병 확산에 방을 위해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신체접촉이 빈번한 시설물의 수시 소독 여부 등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출입구 바닥 2m 거리두기 간격 표시, 출입구 분리대 설치, 이용수칙 안내문 게시 등 시설 관리를 병행한다.

아울러, 방문객 증가에 따른 길이·임시화장실을 추가 확보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별기 뚜껑닫고 물내리기' 등 이용객 위생수칙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청소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시설물 파손, 비품 미비치 등은 신속히 보수해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 철도담당 공무원 정책세미나 개최

### 전북연구원사군 정책협력단, 국가 철도망 구축 이해·대응방안 모색

전북도 전북연구원, 한국철도화회가 공동으로 14개 시·군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철도담당 공무원 철도정책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앞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철도정책과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함으로써 철도담당 공무원의 업무이해도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전북연구원 김삼영 기획소통팀장의 진행으로 최진석 한국철도화회장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 이해와 전북도의 대응'에 대한 강연과 참석자들의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철도정책 세미나를 통해 전북도 철도담당 공무원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도 철도망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좋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북도 철도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보건환경연구원 전북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협약 체결

### 자료 공동활용 통한 연구활성화·상호협력 다짐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외국학술지지원센터(센터장 정안성)와 상호 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하여 보유자료의 상호교환과 학술정보 원문 복사

서비스 등 콘텐츠를 교류하기로 하였고 학술세미나 행사 등에 상호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가 지정받은 농·축산·수의학분야 뿐 아니라 전국 10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각 분야 자료를 무료

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관·학이 다양한 학술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연구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며 "우리기관의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주관으로 외국학술지의 기관별 중복구독 배제와 외국학술정보의 전략적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되었으며 전북대학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강원대와 같이 2009년에 지정되었다. /유호상 기자

### 도민과 원우를 위한 특강 및 축제

감사와 사랑의 달 5월에 유명강사를 초청해 도민을 위한 스피치 무료특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인들과 같이 참석하여도 무방합니다.

강사 박인옥  
명지대학교 교수 역임  
국내유명 여성강사1호

대회본부장 김광옥  
전담교수  
스피치올림픽 전북회장

대회장 손명엽  
군산대 스피치과정 원우회장  
서광수술포럼(주) 대표이사

- 일시 : 2022년 5월 14일 (토) 오후 2시
- 장소 :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남문 앞)
- 주최 :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 주관 :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전화 : 285-6676, 231-6669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